

41.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3년 9월 27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5일
- 상정일자 :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(2023년 10월 13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주진욱)

□ 제안이유

-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일환으로, 화원초 외 3교(구지초, 평리중, 대구북중)의 학교 개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으로 추진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- BTL 대상학교 현황

(단위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구 분	학교명	예정지	사업내용			비고
			사업면적(m ²)	학급수	총사업비	
개축	화원초	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0	4,361.6	22	11,626	후관동
	구지초	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45-11	3,720.8	26	9,918	교사1,2동
	평리중	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5길 21	2,738.2	19	7,298	교사2,3동
	대구북중	대구 북구 공향로 50	3,895.9	13	10,384	본관동
계	4교		14,716.5	80	39,226	6동

○ 의무부담금액

(단위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사업명	사업면적 (㎡)	총사업비	의무부담액(20년간)		
			계	시설임대료	운영비
회원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(BTL)	14,716.5	39,226	80,819	60,623	20,196

※ 사업물량, 사업금액은 향후 사업자제안 및 실무협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동의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대상교 중 회원초 등 4개교를 BTL 방식⁴³⁾으로 추진함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 및 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 제115조제4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임

○ 검토결과

- ▶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,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총 사업추진 대상물량인 134동 중 재정사업으로 100동(75%), BTL 사업으로 34동(25%)을 추진 중에 있으며,

[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현황]

구분	대구 (전국 4.7% 수준)		21~22년 대상		23년 대상		24년 대상		25년 이후 대상	
	물량	사업비	물량	사업비	물량	사업비	물량	사업비	물량	사업비
재정(75%)	100동	6,100억원	39동	2,661억원	11동	669억원	18동	1,098억원	32동	1,672억원
BTL(25%)	34동*	2,655억원	14동	982억원	6동	394억원	6동	394억원	8동	885억원
합계	134동	8,755억원	53동	3,643억원	17동	1,063억원	24동	1,492억원	40동	2,557억원

43) BTL 방식 :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(Build)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(Transfer)하고, 민간은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대(Lease)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

- * 2021년 : 4개교 7동[고산초(본관), 서도초(1,2,3동), 명덕초(남관), 달성중(본관, 후관)]
 2022년 : 4개교 7동[동부초(본관), 평리초(교사1,2,3동), 만촌초(본관), 안심중(본관, 서관)]
 2023년 : 4개교 6동[화원초(후관), 구지초(교사1,2동), 평리중(교사2,3동), 대구북중(본관)]
 2024년 : 공모예정

- ▶ 이번 동의안은 2023년 BTL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화원초 등 4개교 6개동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으로 대구시교육청의 의무부담액은 시설임대료 606억 2300만원, 운영비 201억 9600만원, 총 808억 1900만원으로 상환방법은 20년간 분할 상환이며, 시설임대료 사업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 1.82%와 가산율 1.02%를 더한 2.84%이고, 운영비는 최초년도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매년 1.14% 적용한 것임
- ▶ 이러한 대구모 시설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 시 민간의 자본력·창의성·효율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
- ▶ 다만,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학교 내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, 교실 수 부족에 따라 모듈러 교실을 운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환경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
- ▶ 따라서, 사업 추진 시 학교별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모듈러 교실 설치·운영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⁴⁴⁾ 등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
- ▶ 또한,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한동안

44) 서울시교육청의 경우, 2023년 1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지침보다 안전·학습권 보호를 강화한 「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」을 마련·배포

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악화되어가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20년 상환 방식의 BTL 사업 추진은 장기간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,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교육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BTL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- ▶ 아울러, BTL 사업이 20년이라는 장기 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상·협약 체결 시 하자관리·유지관리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,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의 유지·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
[대구광역시 학령인구(6~21세) 추계 현황]

(단위 : 명)

연 도	2022	2025	2030	2035	2040	2045
학령 인구수	350,681	315,340	261,780	211,222	182,371	184,641

※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참조 (2022. 9. 29. 기준)

- ▶ 끝으로, 향후 20년 동안 대구지역의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에, 학교시설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 시 향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 학교운용의 어려움·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·분석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○ BTL사업 추진 시 장기간 계약에 따른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교 운용 및 계약의 유지·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		○ 기존과 달리 23년부터는 학생 수 급감 등에 따라 폐교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금만 줄 수 있도록 하거나 5년마다 사용자 위주의 중간평가를 통해 재계약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	
○ 공사 진행 시 수업 시작 전, 방과후 학교 시간을 피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 저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?		○ 협약체결 시 공사영역과 수업영역을 철저히 구분하고 동선을 나누는 등 사전 계획을 점검하고 요건에 충족되어야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있음. 지금보다 안전에 대한 관리·감독에 특별히 노력하겠음	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수정안요지

○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